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일즉다 다즉일(一法是一切法, 一切法是一法)

오늘은 <진역 화엄경소>의 서문, 그 두 번째 단락을 접목하겠습니다.

② 이렇게 무장 무애한 법(法)이 법계법문의 술(術)이 되니 그곳은 제 보살이 드는 바요, 삼세 제불이 나오는 바이며, 이승(二乘) 사과(四果)가 귀하고 눈멀어지는 곳이고, 범부(凡夫) 하사(下士)들의 멋모른 웃음거리가 되는 소이다.

이 법문에 든 사람은 한 생각이 능히 무변 삼세를 나탈 수 있고, 사방세계를 온통 한 티끌속에 넣을 수 있으니, 이같은 도술을 어찌 가히 사의(思議)할 수 있겠는가.

② 如是無障礙之法, 乃作法界法門之術, 諸大菩薩之所入也, 三世諸佛之所出也, 二乘四果之難首, 凡夫下士之所笑罵, 若人得入是法門者, 即能不過一念普現無邊三世, 復以十方世界 咸入一微塵內, 斯等道術豈可思議.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전전에 작고하신 김지전 선생님은 식사를 마치고는 늘, "이제 좀 뱃이 보이네" 라는 감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촌철

의 진실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지갑이 두둑할 때와 빈털터리일 때, 우리가 느끼는 조바심과 행복지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느긋해 하는데, 이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지갑의 두께는 신체에 아무런 직접적 연관을 갖지 않지만, 그것이 심리적 포만감을 주고, 그것은 또 육체적 안정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삼계(三界)는 유식(唯識)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만든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병을 고치려 해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마음을 손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그것은 선가의 표현을 빌면, "모래를 찌서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법계로 들어서는 비결 또한 마음을 잘 먹는데 있습니다. 마음을 잘 먹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것은 곧바로 이제가 지와는 다른 삶으로 이끌 것이니, 그때 문득 법계가 열리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법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물리적으로는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세상이라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사바도 되고,

또 법계도 되는 것입니다. 원효가 <대승기신론>의 요지를 설명하는 표종체(標宗體)의 첫머리에서 설파하는 것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대승(大乘)의 열굴(體)은 만상의 거죽을 벗어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그 열굴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효는 그래서 곧 "그러나 육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다"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대승 혹은 법계의 이 역설의 미묘(微妙)를 깊이

웃은 인간에게, 어떤 이는 축복 속에 신성처럼 삼니다. 아, 제발 지옥에서 사는 것은 면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이 물리적 세계를 받아들일 것.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지금 여기의 이 사바(世)에는 없으니, 너는 네게 주어진 삶을 떠나려는 유희와 부단히 싸워야 한다. 2) 그 속에서 다만 우리의 정신적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시켜 나가자.

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벗어나야 할 사바도 없고, 들어서야 할 법계도 달리 없다고 말합니다. 화엄은 모든 인간적 문제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흡사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을 깜빡거리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묻지 말라니

화엄의 취지를 좀 더 부연해 볼까요. 모든 '인설'이나 '교훈'은 좀 어려운 말로,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양식은 다르지만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화엄은 이 모든 인간적 활동들을 웃어 넘깁니다. 화엄은 놀랍게도 "세상이 이미 완전하고, 우리가 이를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엄은 과격하게도, 아무 것도 묻지 말고, 아무 것도 따지지 말고, 다만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네가 이 세상과 닮은 것을 그만, 세상은 고요해 질 것이니, 그때 진정한 세상이 이미, 우리가 손댈 필요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육조 혜능이 오랜 침거를 마치고 나설 때, 어느 절에 두 스님이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하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흔들린다"고 맞서는데, 육조 스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들 마음이 흔들린 것일 뿐."

세상이 불안정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린 탓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온해집니다. 그렇다면 불교조자, 그 당시 없이 높은 아낙다라삼삼삼삼의 가르침조차, 평지에 일으킨 풍파 아니런 굴어 부스럼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발끈 주먹을 쥐고 흔들립니다. "그럼, 이 혼탁하고 불행한 세상을 그냥 두단 말이나." 이것은 불교를 향한 근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고대 조선태 교수의 강의를 초대되었다가 어떤 학생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답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방의 선지식들은 이 화두에 무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화엄은 세상이 더없이 완전하다는데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같은 지구 위나, 정신적으로는 서로 다른 수준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이 두 세계가 모순 없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이 오묘함에 불교 인설의 비밀이 있습니다.

육도 인간들이 사는 서로 다른 세상 풍경

하니, 우리 모두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의 대가 스즈키는 <선의 입문>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차를 마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세계이지만, 우리는 각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육도(六途), 여섯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짐승처럼 축생계에, 어떤 이는 늘 이빨을 드러내며 야수라에, 어떤 이는 늘 허기진 탐욕으로 아귀처럼, 어떤 이는 울고



그런데, 그런데, 화엄은 이런 인간적 노력을 일거에 헌신처럼 밟고 지나갑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파격적이나 하면, "이승(二乘) 사과(四果)가 귀하고 눈멀어지는 곳이고, 범부(凡夫) 하사(下士)들의 멋모른 웃음거리가 된다"고 적을 정도입니다. 화엄이 대체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는 나고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화엄은 지금까지의 불교와는 달리, "사바와 법계가

'수행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지금 어느 한 단계 불완전하며,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이에게 "애야, 밥 먹어라"라는 권유에서, T.V. 토론에서처럼 자기주장을 펼치는 마당, 나아가 지나간 과거를 읽고 해석하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원리입니다. 최근의 독도문제와 정지권의 과거사 공방을 보면 그 점이

주장사파라...

⑥7 앙산혜적의 '여자'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and illustrations. Key dialogue includes: "아무개 비구니는 가정을 버리고 왔대", "나는 깨달았잖아", "이제 좀 뱃이 보이네", "혜적 네가 무슨 도리를 봤길래?", "비구니는 여자입니다".

앙산 혜적(仰山慧寂, 803-887): 당대 스님. 시호는 지통(智通). 소주 출신으로 17세때 출가해 무명지와 소지를 잘라 서원을 세우며 삭발함. 위산(滙山) 스님의 법을 이음.

네티즌 교리문답

보임(保任)이란 무엇입니까?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 깨달을 것이 없다, 깨닫고 나니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무엇이 있으랴' 하는 그런 말과 깨닫고 난 뒤에도 보임을 잘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에겐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공금미)

답1: 깨닫고 나서 보임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깨닫고 나면 아무 건덕지가 없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깨달음이 자성의 부와 자성의 자가 땅 상봉하여 계합하는 것입니다. 참나를 발견했다, 견성했다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부자가 계합이 됐다 하는 것은 첫째 일체의 내 경계가 바로 거기서 나온 줄을, 거기로 드는 줄을 알았다는 것이고 둘째 나와니, 주객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셋째 일체만법의 나투는 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처지가 한꺼번에 다 깨어났는데 색이 낫을 뿐 다 자란 게 아니라면, 즉 일체 경계가 다 내 탓인줄 투철히 알아 행 속에서 여여하지 않다면, 또는 둘 아닌 도리, 만법이 나투는 도리를 여실히 꿰뚫어 보지 못한 바가 아직도 있다면 더 덕을 배가 있다고 하겠지요. 그걸 보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여여하고, 철나찰나 만법이 들고나며 자유자재한 줄 알았다면 돈오돈수라 해도 맞겠지요. 공부하는 이에게 중요한 것은 돈오돈수가 맞다, 돈오점수가 맞다는 시비에 있지 않습니다. 이론이야 아무런 어떻게 하든, 이론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체를 항복받아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도리가 나올 때까지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불학자)

답2: 이 보임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말해본다면, 깨달음이 완전하고 향상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키워가나 지킬 것도 없을 것이고, 지고의 진리를 증득하였으니 한 울의 사뭇이나 거리낌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실아가면서 온갖 세파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보임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시달리다 보면 보임이 왜 필요한지는 깨닫지 못하여도 저절로 알 것 같군요.

결론적으로 보임은 깨닫기 전에는 향상사를 위해서 할 것이고, 깨닫고 나서는 향상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조)

불타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9x9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1 and a 4x4 grid with numbers 6-9.

상식퍼즐

1. 1916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이론을 확장하여 가속도를 가진 임의의 좌표계에서도 상대성이 성립하도록 체계화한 이론 2.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즐거움 3. 삼중주 또는 삼인조를 나타내는 외래어 4. '아무'보다 조금 홀대하게 쓰는 말로 김보씨의 표현, 김○○씨, 5. 담석 때문에 담낭관이 막히고 거기에 세균이 감염되어 일어나는 질환.

6.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 7. 사물을 사실대로 재현하지 않고 화가의 상상 등에 바탕을 둔 회화 8.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여 근로 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 9.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으로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언론·보도의 자유를 탄압하고, 외국자본의 배제와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한 10. 더 없이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음 11. 극단 '복화'를 창당한 연출가로 '천년의 수인' 등의 작품이 있음.